

# 2024.09.13.(금) 증권사리포트

삼성전자

메모리 증설 계획 축소, 업황 호조 예상

[출처] 키움증권 박유악 애널리스트

3Q24 영업이익 11조원 예상

삼성전자의 3Q24 실적이 매출액 79.0조원(+7%QoQ)과 영업이익 11.1조원(+6%QoQ)으로, 시장 기대치 및 당사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의 경우 반도체와 OLED의 출하량 부진 영향을 소규모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문의 일회성 비용(성과급 관련 총당금, 반도체 재고평가손실 환입 규모 축소 등)'과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판단된다. MX 부문은 스마트폰의 판매량 호조(5,700만대 예상)로 인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VD 부문 역시 견고한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4Q24 영업이익 13.1조원 전망

4Q24 실적은 매출액 74.7조원(-5%QoQ)과 영업이익 13.1조원(+19%QoQ)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높아진 고객 재고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출하량 부진(DRAM -2%QoQ, NAND -5%QoQ)이 예상되지만, 가격 상승(DRAM +8%QoQ, NAND +3%QoQ)이 이를 상쇄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한다. 파운드리와 S.LSI 부문은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하지만, 연말 성수기에 진입하며 실적 개선세를 이룰 전망이다. 그 외 사업 부문은 SDC의 실적 증가가 MX와 VD의 계절적 비수기 영향을 상쇄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너무도 과도한 주가 하락

3Q24 실적 우려(일회성 요인 영향)를 빌미로 시작된 주가 하락이 이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는 DRAM 업황은 앞으로 '1)AI향 HBM의 수요 강세 지속 여부'와 '2)공급 업체들의 증설 속도'에 의해서 그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1)HBM 수요'의 경우 여전히 강세를 띄고 있다. 당사가 걱정해왔던 '2)공급 업체들의 신규 증설'은 경기 불안 심리로 인해 미뤄질 것으로 예상돼, 내년 상반기 DRAM 업황이 예상보다 견고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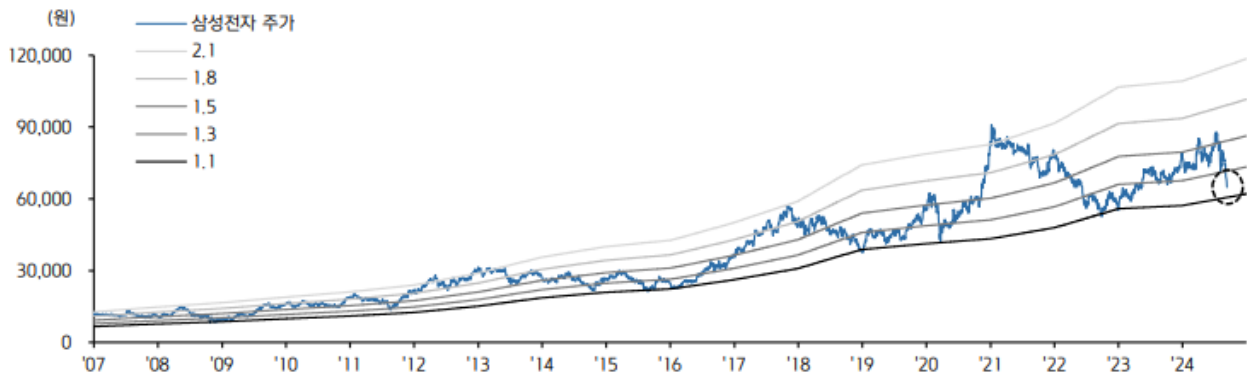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급락해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DRAM 업황에 대한 안도 심리 만으로도 충분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NAND 부문 실적 전망치 변경을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과도한 주가 하락을 기회로 비중을 확대할 것을 추천한다.

##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302,231	258,935	299,751	314,661
영업이익	43,377	6,567	41,226	53,099
EBITDA	82,484	45,234	78,878	92,584
세전이익	46,440	11,006	45,751	57,576
순이익	55,654	15,487	37,735	44,324
지배주주지분순이익	54,730	14,473	36,976	43,432
EPS(원)	8,057	2,131	5,444	6,394
증감률(%YoY)	39.5	-73.6	155.5	17.5
PER(배)	6.9	36.8	11.9	10.2
PBR(배)	1.1	1.5	1.1	1.1
EV/EBITDA(배)	3.5	10.4	6.0	5.0
영업이익률(%)	14.4	2.5	13.8	16.9
ROE(%)	17.1	4.1	10.0	10.8
순부채비율(%)	-25.4	-16.9	-15.4	-17.7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12개월 Trailing P/B Chart: 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코로나19 수준까지 급락한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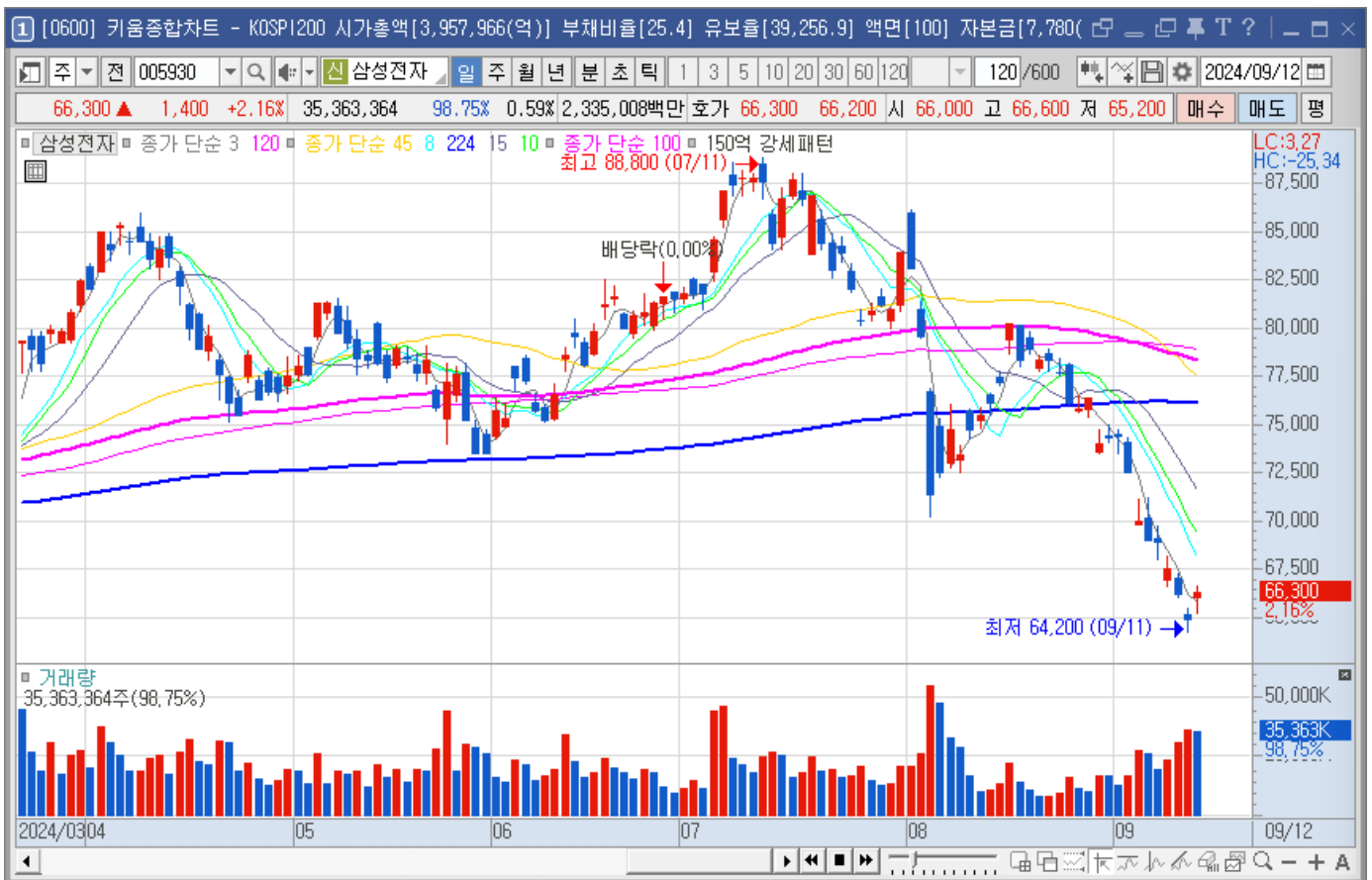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P/B vs. ROE Chart: 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코로나19 수준까지 급락한 주가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현대건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개발사업  
 [출처] 하나증권 김승준 애널리스트

현대건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중 하나: 디벨로퍼 전환

현대건설이 제시한 2030 전략의 네 가지 축 중 하나는 포트폴리오의 확장이다. 기획 서비스, 콘텐츠 중심의 디벨로퍼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지분투자를 하여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CJ가양부지, 복정역세권, 힐튼호텔, 용산크라운호텔, 이마트부지가 있다. 이러한 투자개발형 사업이 총 21개가 있으며, 총 공사비 규모가 약 1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2026년부터 매년 2조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장 기대하는 프로젝트: 복정역세권, 힐튼호텔

복정역세권 개발은 대지면적이 6.6만평, 연면적 50.6만평의 규모로, 오피스 29.3만평, 지식산업센터 8.1만평, 오피스텔 8.0만평, 판매시설 3.8만평, 숙박시설 1.2만평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오피스 29.3만평 크기는 롯데캐슬 모리타워(단지 전체 22.9만평), 아자부다이힐스 모리타워(단지 전체 26.1만평)보다 크며, IFC(15.3만평)와 비교했을 때 그 크기를 체감할 수 있다. 토지비만 3.2조원 규모로 사업비가 약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대건설의 지분은 29.6%다. 2026년 1월 착공, 2029년 9월 완공 목표다. 힐튼호텔은 대지면적 5,700평의 연면적 10.4만평 규모로, 오피스 8만평, 호텔 1.9만평 등으로 계획 중이다. 단일 오피스동으로서 서울 내 최대 면적(기준층 전용면적 1,140평)으로 임차 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 층 기준으로 파크원이 약 550평, IFC가 약 530평,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약 520평인 것을 고려하면, 한 층의 크기가 2배 가까이 된다. 호텔 매입을 약 1.1조원에 완료했으며, 2024년 12월 철거, 202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0,000원 유지

현대건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는 40,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024년 EPS 추정치에 Target P/E 9.0배를 적용했다. 개발 사업이 이익으로 이어지기는 본격적인 시기는 2026년으로, 개발의 가치가 주가에 영향을 주기엔 비가시적 이익 레벨과 시간적 기다림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적 요소와 전반적인 이익 부진에 대한 개선이 확인될 때, 현대건설의 주가 상승 여력은 매우 크다.

##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21,239.1	29,651.4	33,469.6	29,967.4
영업이익	574.9	785.4	746.8	760.5
세전이익	753.8	939.5	901.4	766.9
순이익	408.9	535.9	493.3	487.0
EPS	3,637	4,767	4,388	4,332
증감율	(0.38)	31.07	(7.95)	(1.28)
PER	9.60	7.32	6.79	6.88
PBR	0.51	0.48	0.39	0.37
EV/EBITDA	3.54	3.64	2.71	1.80
ROE	5.49	6.77	5.89	5.52
BPS	68,380	72,383	76,613	80,345
DPS	600	600	600	600





## 마녀공장

해외 채널 중심 성장세 지속

[출처] 키움증권 조소정 애널리스트

이벤트가 많았던 2분기

마녀공장의 2분기 매출액은 366억원 (+47% YoY), 영업이익은 83억원(+158% YoY, OPM 22.7%)을 기록했다. 국내와 해외 둘다 성장이 돋보였다.

국내: 국내 매출 159억원 (+33% YoY)을 기록했다. 채널 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69% YoY, 오프라인 +20% YoY 성장을 기록했다. 네고왕 이벤트(46억원)로 온라인 매출이 크게 성장했고, 오프라인은 주요 MBS 채널 중심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해외: 해외 매출 207억원 (+59% YoY)을 기록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성장 흐름을 보였고, 특히 미국이 신규 채널 진입으로 큰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 매출은 54억원 (+349% YoY)을 기록했다. 아마존 채널 성장이 견조했던 가운데 (+244% YoY), 코스트코향 물량 30억, 얼타향 물량 6억이 반영되면서 성장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 외 국가들은 낮은 기저 부담과 채널 확장 덕분에 성장을 기록했다 (유럽 +362% YoY, 중국 +133% YoY, 기타 아시아 +42% YoY).

한편 일본은 71억원 (-17% YoY)을 기록했다. 오프라인 마케팅 확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채널 내 가격 경쟁 확대로 인해 온라인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도 줄어들었다.

3분기에도 성장 흐름은 지속

마녀공장의 3분기 매출은 327억원 (+23% YoY), 영업이익은 51억원 (+8% YoY, OPM 15.7%)을 기록할 전망이다. 채널별 매출 성장률은 국내 +17%, 해외 +28%를 예상한다. 국내는 쿠팡 채널 재입점과 국내 MBS 판매 호조 지속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는 채널 확장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국내 매출 141억원 (+17% YoY)을 기록할 전망이다. 채널별 성장률은 온라인 +16% YoY, 오프라인 +19% YoY 성장을 예상한다. 온라인 쿠팡 채널 재입점 효과와 주요 MBS 채널의 판매 호조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해외: 해외 매출 208억원 (+59% YoY)을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 채널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36% YoY, 일본은 +4% YoY 성장을 예상한다. 미국은 주요 채널항 (아마존, 알타 뷰티 등) 수출이 견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일본은 온라인 판매 채널의 할인 경쟁 확대 현상과 오프라인 채널 성장의 영향이 상쇄되면서 소폭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2	2023
매출액	98.8	101.8
영업이익	23.8	15.4
EBITDA	24.5	16.4
세전이익	21.5	14.4
순이익	16.8	11.3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6.8	11.3
EPS(원)	1,225	749
증감률(% YoY)	NA	-38.9
PER(배)	0.0	30.0
PBR(배)	0.00	3.80
EV/EBITDA(배)		17.3
영업이익률(%)	24.1	15.1
ROE(%)	33.2	15.6
순차입금비율(%)	-73.5	-79.1





## 주성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문제는 없다

[출처] NH투자증권 류영호 애널리스트

실적에 대한 기대 vs 부정적인 투자심리

주성엔지니어링에 대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나 목표주가를 35,000원으로 하향 조정. 최근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 변동성 확대와 함께 글로벌 Peer 기업들의 급격한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 Target PER을 14.4배(기존 18.2배)로 20.1% 하향 조정

주요 고객사 전환 투자 본격화와 2025년에도 국내 주요 고객사와 중국 업체들의 신규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견조한 실적 예상. 다만 1)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투자 축소 우려 2)여전히 높은 중국 매출 비중 3)분할을 앞둔 시점 부진한 디스플레이/태양광 사업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존재.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등을 고려해도 동사의 주가는 저평가 영역.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의 고객 확보 또는 신규 수주가 가시화된다면 단기 주가의 모멘텀이 될 것

## 3분기도 긍정적인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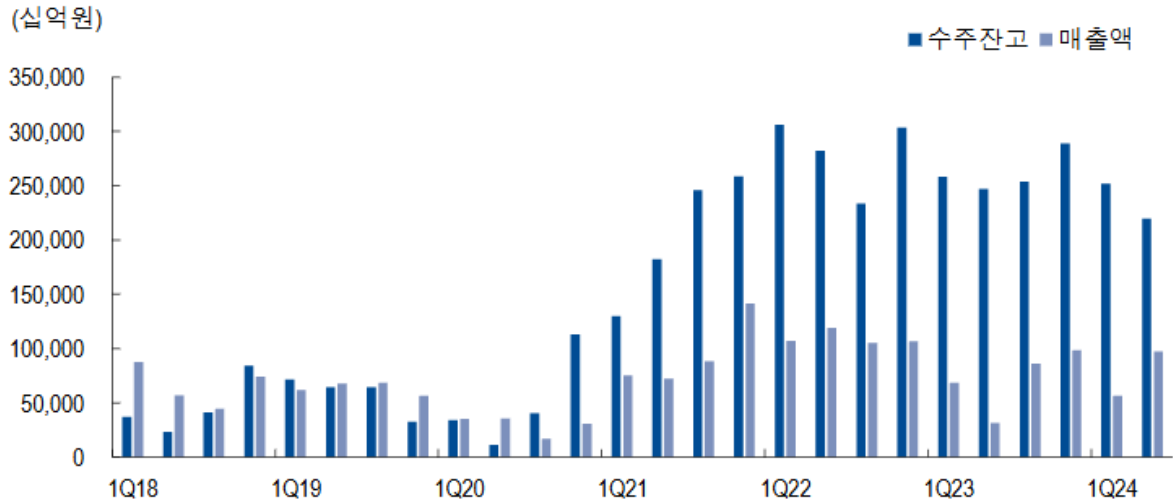
3분기 매출액은 1,304억원 (+33.9% q-q, +51.4% y-y) 영업이익 450억원 (+24.7% q-q, +627.5% y-y)를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 전망. 하반기 주요 고객사 전환 투자 매출 인식 시작. 신규 투자 관련된 부분도 연말에 근접할 수록 윤곽이 잡힐 것으로 기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견조한 중국 매출 예상. 높은 중국 매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국내 업체까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 상반기 부진했던 디스플레이 매출도 보완 투자와 함께 점진적인 회복 전망. 태양광의 경우 올해 추가 수주가 예상되나 매출 인식 시점은 2025년으로 예상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285	410	470	564
증감률	-35.0	43.9	14.8	20.0
영업이익	29	126	136	165
증감률	-76.6	336.5	8.0	20.8
영업이익률	10.2	30.8	29.0	29.2
(지배지분)순이익	34	116	110	144
EPS	705	2,427	2,333	3,041
증감률	-68.0	244.3	-3.9	30.4
PER	48.5	9.2	9.5	7.3
PBR	3.2	1.7	1.4	1.2
EV/EBITDA	32.7	6.3	5.4	3.8
ROE	6.8	20.3	16.2	17.8
부채비율	56.4	48.5	42.4	38.0
순차입금	-66	-146	-234	-376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2. 주성엔지니어링 매출 및 수주잔고



자료: 주성엔지니어링,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세경하이테크

다양해지는 모멘텀, 과거로 회귀한 시가총액

[출처] 하나증권 김성호 애널리스트

나쁘지 않았던 상반기, 그러나 높았던 기대치

세경하이테크는 1H24 매출액 1,727억원(YoY +35.5%), 영업이익 227억원(YoY +121.7%), OPM 13.2% (1H23 OPM 8.1%)로 실적 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실적 대비 시장 기대치가 높았기에 주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스마트폰 고객사 판매량 상승폭이 기대 대비 둔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동사의 사출필름 등 레거시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대모멘텀이었던 폴더블 스마트폰의 회복 및 신제품 효과도 아쉬웠다. 중저가 모델을 비롯한 갤럭시Z플립, 폴드 판매량이 연초 대비 부진했으며, 신제품부터 적용되는 신규 공법에 따라 세경하이테크의 ASP 상승 효과가 긍정적이었으나 초기 생산 수율 이슈가 존재했다. 해당 수율 이슈는 지난 7월부터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갤럭시Z폴드6, 플립6 판매량 추이에 따라 매출 변동성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하여 분기 추정치를 하향하지만 향후 기대 모멘텀과 현재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낙폭과대 구간으로 판단한다.

## 아직 살아있는 모멘텀들

세경하이테크의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기대 모멘텀은 i) 국내 고객사 신제품 출시, ii) 북미 고객사 향 사업 확대, iii) 자회사 세스맷의 성장성이다. 24년 10월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갤럭시Z폴드6 슬림' 모델의 경우 기존 폴드6 모델보다 화면 크기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경하이테크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폴더블 PL(CFW)을 공동 개발하여 고객사 향 독점 공급 중이기에 신규 모델 확대가 기대되며 디스플레이 면적 확대에 따른 ASP 상승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해당 모델이 4Q24 출시된다면 동사 실적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고객사 태블릿 향 OLED OCA 매출액은 올해 분기별 지속 상승 중이다. 출시 초기 출하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려와 달리 실적 성장을 기록한 점이 긍정적이며, 최근 북미 고객사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한 상황에서 기존 모델 향 스마트폰 OCA를 지속 공급해온 세경하이테크에게 신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OCA 매출은 임가공 형태로 진행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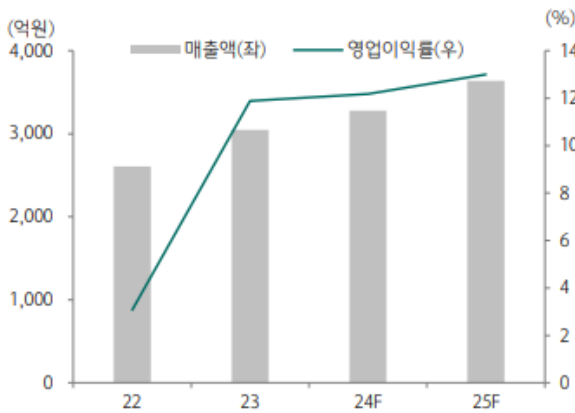
에 전사 영업이익률은 올해 하반기 및 2025년에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자회사 세스맷의 고분자 기반 배터리용 단열 소재는 국내 다수의 셀메이커 업체 향 퀵 테스트 진행 중이며 연내 관련 매출 발생 및 2025년 양산 본격화가 기대된다. 중장기적 모멘텀 유효하다.

투자의견 유지, 목표주가 8,000원으로 하향

세경하이테크에 대한 투자의견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8,000원으로 하향한다. 하향의 배경은 2025F EPS 조정 및 Peer Value를 감안한 Target PER 조정에 기인한다. 1H24 실적이 연초 기대치를 하회하였으나 연내 모멘텀 및 25년 성장 여력 유지하고 있으며 25F 5배 수준이다. 현재 낙폭과대 구간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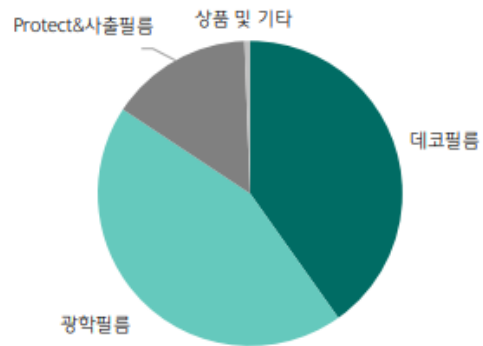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260.6	304.5	327.6	363.8	
영업이익	8.0	36.2	39.9	47.3	
세전이익	16.2	33.9	(20.0)	45.2	
순이익	16.5	34.9	(16.8)	38.3	
EPS	465	761	(341)	778	
증감률	(27.68)	63.66	적전	흑전	
PER	8.50	8.52	(15.75)	6.90	
PBR	0.81	1.57	1.53	1.31	
EV/EBITDA	3.43	2.98	4.99	4.06	
ROE	9.98	18.72	(9.05)	20.79	
BPS	4,896	4,122	3,518	4,084	
DPS	0	300	300	300	

도표 3. 세경하이테크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마나증권

도표 4. 1H24 기준 사업별 매출 비중



자료: 마나증권



비율

본업 실적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

[출처] NH투자증권 심의섭 애널리스트

재차 지연된 ITC 1차 판결

동사 주가는 7월부터 두 달간 약 30% 하락. ITC 1차 판결 발표가 7월에 이어 전일까지 3차례 연기되며 투자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시장 하락 영향과 더불어 2분기 기술이전수입으로 인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본업 성장 둔화 우려로 주가 하락

재차 연기된 ITC 판결 결과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승소 시 재무적 효과와 더불어 니들 RF 시장 내 동사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 전망. 반면 패소 시 동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추정. 지금은 다시 본업 실적 성장성에 시선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

다가오는 성수기, 지속되는 실적 성장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 영향과 더불어 미주 지역발주 회복 및 신규 진입한 중국 및 브라질 지역에서의 성과가 확대되며 장비, 소모품 매출 모두 y-y, q-q 고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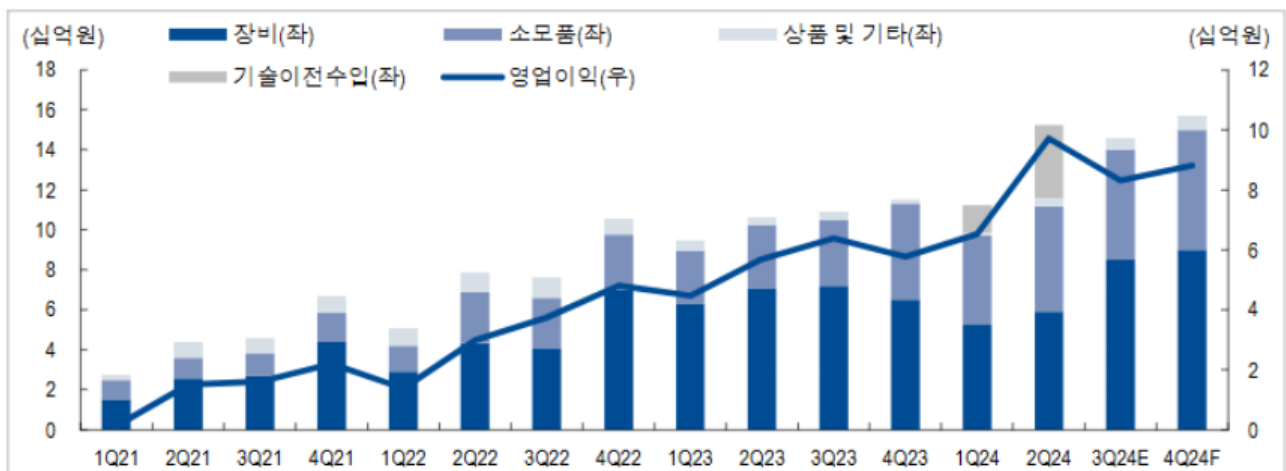
장비 매출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미주, 아시아 지역 유통상 재고 조정 영향으로 상반기 부진하였으나, 미주 지역 중심으로 발주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향 매출 또한 지속 증가 추세. 소모품 매출은 장비 보급 확대 및 시술 증가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하반기에도 지속 전망.

6월 출시한 신제품 '셀리뉴' 및 하반기 출시 예정인 '듀오타이트' 또한 중장기 측면에서 실적 기여 기대. 3분기 기술이전수입 매출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본업 실적 성장이 이를 상쇄할 전망. 2024E 기준 PER 15.5배, 2025F 기준 13.3배로 저평가 구간이라 판단되며, Peer 기업들의 자진 상장폐지, 흡수합병 등으로 인해 시장 내 선택지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ITC 판결 또한 중요하나, 현 주가 수준에서는 실적 성장성과 낮아진 Valuation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 판단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42.5	56.8	76.7	100.4
증감률				
영업이익	22.3	33.3	41.8	55.3
증감률				
영업이익률	52.5	58.7	54.5	55.1
(지배지분)순이익	21.6	29.9	35.0	47.2
EPS	370	512	599	808
증감률				
PER	23.0	15.5	13.3	9.8
PBR	8.7	5.4	3.9	2.8
EV/EBITDA	19.1	11.4	8.5	5.7
ROE	44.9	41.8	34.0	33.0
부채비율	11.8	8.7	6.9	5.6
순차입금	-49.5	-75.1	-104.5	-146.7

단위: 십억원, %, 원, 배

### 비율 분기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비율,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아이에스동서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

[출처] BNK투자증권 이선일 애널리스트

1H24 실적: 분양물량 급감과 신사업 부문 영업환경 위축으로 부진

금년 상반기 매출액은 8,22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0%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건설 4,777억원 (-33.9%), 환경(폐기물) 1,966억원(-9.4%), 콘크리트 810억원(-12.1%), 2차전지(폐배터리) 603억원 (+22.1%) 등이다.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물량 급감(23년 이후 전무)으로 건설 관련 외형이 크게 줄어들었다. 환경은 건설폐기물 감소와 단가(소각 단가) 약세의 영향을 받았다. 2차전지는 리튬가격 약세에도 M&A 효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 매출 감소로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4.6% 줄어든 1,360억원을 기록했다

당분간 건설 리스크 관리와 신사업(특히 2차전지) 역량 확대에 중점

아이에스동서의 주력 사업지는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방지역이다. 하지만 주택사업 리스크는 크지 않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들은 주택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분양을 실시했다. 주요 예정사업지도 오래전에 저가로 매입한 토지들이기 때문에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은 거의 없다. PF 대출보증은 금년 상반기말 기준 2,28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0.1배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부 정비사업 관련 보증채무이기 때문에 PF 관련 리스크는 사실상 제로 수준이다. 2019년 폐기물 업체 인수로 시작된 신사업은 성장잠재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23년 초에는 국내 2위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를 종속회사로 편입했다. 2023년 8월에는 유럽 폐기물 재활용 업체(BTS Technology)를 인수하며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신사업부문(폐기물 및 2차전지)의 매출비중은 2022년 18.6%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31.2%까지 상승했다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31,000원 제시

아이에스동서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다만 목표주가는 시황 및 업황부진을 반영(Multiple 하향 등)해 38,000원에서 31,000원으로 하향한다

Fig. 1: 아이에스동서 연결재무제표 요약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십억원)	2,278	2,029	1,564	1,409	1,800
영업이익	345	341	246	189	278
세전이익	286	220	144	93	190
순이익[지배]	196	161	103	67	136
EPS(원)	6,334	5,216	3,401	2,225	4,507
증감률(%)	86.4	-17.7	-34.8	-34.6	102.6
PER(배)	4.5	5.6	6.4	9.8	4.8
PBR	0.6	0.6	0.4	0.4	0.3
EV/EBITDA	4.8	4.9	5.5	6.0	4.3
ROE(%)	14.8	10.9	6.4	4.0	7.6
배당수익률	0.0	5.2	6.9	6.9	6.9

자료: 아이에스동서, BNK투자증권 / 주: K-IFRS 연결



